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55

IIIRI Online Series

연습과 훈련은 군의 존재가치: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재개 계획 준비해야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 12. 11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연습과 훈련은 군의 존재가치: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재개 계획 준비해야



홍 규 덕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한미군의 존재가치와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이 미국 안보의 린치핀(linchpin)이라는 통념이 무색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특히 “꿈으로부터 전개되는 전략 자산의 배치”가 북한에게 큰 위협을 준다”는 표현과 “연합 훈련이 예산 낭비”라는 주장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 대통령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회담 직후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에게 우리의 국방장관 만큼은 강력하게 유감 표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북한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나 군이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은 묵시적 동의나 양해로 오해될 수 있다.

한미연합 훈련, 왜 중요한가? 대통령 특보 문정인 교수를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의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미연합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한미연합사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는 연습계획으

로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이를 다음 연습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기구이다. 1년 12달, 하루 24시간을 양국이 이러한 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한미 양국군은 결속력을 갖추게 되며 세계 최강의 연합전력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훈련을 중단하고 연습을 소홀히 한다면 한미연합사의 장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장교들이 임무 숙달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은 더 심각하다. 군인은 배치 받은 보직을 통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재임 기간 동안 주어진 임무로부터 자신이 담당해야 할 분야를 익히고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미군의 경우 일생 중 한반도에 근무하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에이브람스 현 연합사령관과 같은 경우, 단 한 차례도 아태 지역 근무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군은 전 세계 많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 중 참가하는 연습과 훈련은 그래서 더 소중하다. 이들이 한반도 전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한국군과의 일체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다. 한미연합사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양국 군 장교들은 한미연합사가 제공하는 연습과 훈련 계획을 통해 미국에서 전개될 증원 병력과 함께 한반도 방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훈련의 중단은 양국군 모두에게 생애주기를 무너뜨리는 충격을 가져다 준다.

특히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란 점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한다. 2019년 8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합연습을 진행했지만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규모면이나 점검 차원에서 더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금년 연습은 IOC (초기 작전역량)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우리가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첫 관문이다. 아직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한다면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

습과 훈련 없이 도상으로만 전환 준비 상태를 검증한다는 점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한미연합방위의 기본설계는 우리 군의 부족한 부분을 미측이 보완전력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진단도 충분치 못하고 이를 지원할 미국의 의지가 의문시 된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110회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했다는 점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력 제공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용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50차 SCM 참가차 서울을 방문해 연말로 예정된 비질란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취소를 발표했다. 연말을 기한으로 진행되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정이라 설명했다. ‘비질란트 에이스’ 훈련은 과거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공중기동 훈련으로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차출된 각종 첨단 전폭기들 230여 대가 집결해 참가하는 훈련이다. 걸프 전 당시 투입된 전투기의 1/3 수준이지만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2017년 겨울에는 실제로 알래스카, 일본 등 다양한 미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이 동원된 적이 있다. 이러한 훈련 부재는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훈련하지 않는 군은 존재가치가 그만큼 희석될 수 있으며 유예조치가 장기화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필요성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한반도 전구가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된 사이, 미국은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조짐이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 공약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나 군은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미측 인사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훈련이 없어도 소규모 훈련이나 시뮬레이션이 오히려 실용적이며 상응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도 각자 훈련을 해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훈련 유예가 장기화 된다면 연합전력 유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과 연습이 미국의 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며, 이러한 시도가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비교적 소규모 합동훈련인

양국 해병대 간의 합동훈련(KMEP: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조차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¹⁾ 물론 정부는 락-드릴(rock drill)²⁾이나 자체 훈련을 통해 군의 대비태세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며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나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편견을 넘어서기 어렵다. 역내 미국의 역할이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맹이론가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양국에 대한 기대치가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 전혀 다르다. 특히 미국 내 안보 커뮤니티나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어려운 요건이 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전략문서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항상 제외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유일하게 한미를 엮어주는 끈이지만 이 역시 남북화해 추진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일 갈등은 미래지향적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양국은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연습과 훈련에 관한 조건부 재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2019년 연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로 선언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북 간에 협상이 재개되어 한반도 역내 훈련이 당분간 어렵다면, 역외 훈련이나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훈련부터 적극 참여해야 한다.³⁾ 한국이 변했다는 주장이 워싱턴 조야에 널리 퍼져있는 반면, 미국도 변했다는 주장이 한국과 일본 등 우방 국가에 만연하다. 이는 불패의 전통을 가진 66년 한미동맹의 지속력을 위협하는 빨간 경고등이 아닐 수 없다. 학계, 정부, 군, 재계, 언론계의 중진들이 이를 가볍게 여

1) 한미 해병 간 연합훈련은 1년에 12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하고 있음.

2) 작전개념 예행연습

3)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연 7회 이상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태평양해병사령관은 2018년 한층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겨서는 안되며 훈련과 연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야 한다.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는 군대는 주둔할 이유가 없으며, 지구상 최강이라는 한미 연합전력의 위용은 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주도층의 침묵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끝/

저자 소개

홍규덕 교수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제정책연구원 원장, 국가보안학회 회장,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CSCAP-Korea) 대표, DCAF 동아시아 지역포럼 대표 등을 맡고 있다. 국방부, 외교부, 합참, 공군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Email: kdhong@sookmyung.ac.kr)